

강원 양구 '곰취' 본격 출하 238t 생산

양구곰취축제 5월 5일 개막...온·오프라인 병행



강원 양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곰취가 지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.

양구 곰취는 지난 3월 28일 첫 출하를 시작해 일부 농가에서 조금씩 생산해왔으나, 최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수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. 현재 곰취는 양구명품관, 하나로마트 등에서 1kg들이 한 상자에 1만3천 원에 판매 중이다.

올해 양구에서는 60여 농가, 20여ha에서 곰취 238t을 생산해 28억6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는 지난해보다 재배 농가 수는 3.3%, 재배 면적은 30.2%, 생산량 33.7%, 소득은 60.4%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.

양구 곰취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. 다양한 음식과 풍미가 잘 어울려 봄을 맞아 나물류를 찾는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.

곰취는 식용으로 어린잎을 따서 고기에 싸 먹는 쌈, 무침, 나물 등으로 먹고, 김치나 된장장아찌를 담가 먹을 수 있다. 겉절이나 된장국, 부침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때 주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.

특히 곰취는 단백질과 나이신, 베타카로틴, 칼슘, 비타민A·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군은 지역특산물인 곰취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'곰취 축제'를 5월 5일부터 8일까지 양구서천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온·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. ❶



1 양구곰취축제 현장 체험 행사 2 곰취 시식 재배

2022 양구곰취축제

2022.5.5(목)~8(일), 4일간

양구서천 레포츠공원 일원
온·오프라인 축제

www.yggc-wildgreens-festa.com



주최 : (재)양구문화재단

주관 : 양구군

f @officialygc

@yangguculture

문의전화 033-482-9174